

쓰레기만 담는 게 아니었네

로봇 청소기의 역습



사생활도 쓸어담는다

광주에 사는 결혼 1년차 황영서(여·30)씨는 결혼 선물로 친구들에게 받은 로봇 청소기를 쓰고 있지만, 카메라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과거 가정용 흡캠(카메라) 해킹 사건 등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황씨는 “청소 중 방해되는 물건을 피하거나 문턱을 넘기 위해 있는 카메라지만 최근 월드 해킹 등 위험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카메라를 없애고 싶다”며 “인터넷 등에서 개인 정보가 수집돼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셀’을 본 뒤로는 더 불안해졌다”고 말했다.

최근 생활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은 로봇 청소기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카메라가 강제로 활성화돼 집 내부 모습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 저장된 사진과 영상이 인증 절차 없이 조회·탈취되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 청소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 ▲드림미 X50 Ultra ▲로보락 S9 MaxV Ultra ▲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이하 중국산) ▲삼성전자 BESPOKE AI 스템 ▲LG전자 코

소비자원, 국내외 제품 조사 중국산 일부 해킹 우려 높아 카메라 켜지고 집내부 노출 삼성·LG 등 국산은 ‘안전’

드제로 로보킹 AI 울인원 등이다.

조사 결과 나르왈·드림미·에코백스 3개 제품은 모바일 앱 인증 절차가 미흡해 불법 접근이 가능했고, 이로 인해 집 내부 촬영 사진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켜지는 취약점이 확인됐다. 특히 에코백스 제품은 악성 파일이 사전점에 전송될 수 있는 문제까지 발견됐다.

정책 관리 분야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드림미 제품은 글로벌 웹사이트 포럼 게시판을 통해 사용자 식별자가 노출되면 이를 활용해 이름·전화번호·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인증 절차 없이 조회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코백스 또한 보안 업데이트 정책이 미흡해 보안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기 보안 분야에서는 드림미와 에코백스가 외부 포트(UART) 노출 등 물리적 보안 대책이 부족했다.

펌웨어 보안 항목은 6개 제품 모두 미흡 판정을 받았다. 불필요한 명령어나 취약한 라이브러리 사용이 발견돼 기기 내부 보안 구조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의 경우 접근 권한 설정, 불법 조작 방지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등이 비교적 충실해 마련돼 종합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나머지 4개 제품은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을 보여 제조사별 보안 역량 차이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6개 사업자에 모바일 앱 인증 절차 강화, 하드웨어 보호, 펌웨어 보안 보완 등 부족한 부분의 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업체가 품질개선 계획을 회신했으며 일부 제품의 사생활 노출 취약점은 즉시 조치가 완료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로봇 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가전은 외부 서버와 연결돼 있어 보안이 취약하면 곧바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는 로봇 청소기 사용 시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유하고 IoT 제품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정책·기술적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해나 기자 khn@

‘1박 2일’ 레이싱 보고 전남 관광하고

전남GT 20~21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서 6개 종목 개최

2025 전남GT(Grand Touring) 대회가 오는 20일부터 이틀 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전남GT는 국내 다양한 레이싱 종목이 참여하는 행사로, 2시간 내구레이스인 ‘전남내구’를 포함, 프로대회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레이싱

전용차량인 ‘스포츠프로토타입’, 모터사이클 종목인 ‘스포츠바이크’ 등 6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매 대회마다 1만 1000여명이 경주장을 찾는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부터는 일요일에 집중됐던 개막식과 결승전 일정을 토요일(개막식·1개 종목 결승전), 일

요일(5개 종목 결승전)로 분산, 전남을 찾은 관람객들이 곳곳에 지역을 둘러보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뿐 아니라, 축하공연, 가상레이싱, 카트체험, 미니카경주, 버블쇼 등 문화행사도 어우러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모터스포츠 관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주말까지 오락가락 비

오늘~5일 5~40mm 소나기

광주·전남에서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번 주말 내내 비가 오락가락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동해북부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틀려 차차 흐려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2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3일 광주·전남에 5~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4일, 5일에도 각각 비슷한 수준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주말인 6일부터는 광주와 전남 일부 지

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8~30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30~33도를 보이겠으며 4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31~33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니 실시간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숨 쉬듯 양성평등 2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본관 1층 현관에서 열린 ‘양성평등 주간’ 행사에서 한 직원이 차별, 편견, 억압, 고정관념, 소외 등 부정적 단어가 적힌 풍선을 터트리는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과징금·과태료 3배 이내 징벌적 손해 청구·출국금지도

정부, 임금체불 처벌 강화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 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최고 수위는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된다. 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더 심각해짐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

련하기로 했다.

내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더해 즉시 제재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향시키기로 했다.

실질적 제재를 위해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 또한 검찰·법원 등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은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p>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각 보험회사 대표번호</p> <p>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p>
--	--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